

2026. 4. 28.(화)

2026년 5월

2026년 5월 경영전략회의 울산 주요 산업 동향



(재)울산테크노파크

울산 자동차 산업 주요 동향

□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 확대

○ 글로벌 전기차 시장

- '24년까지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, '25년부터 판매 증가율 재확대
- 글로벌 무공해차 판매 성장률 : ('21) 123% → ('22) 69.9% → ('23) 29.7% → ('24) 16.3% → ('25) 30.5%
- '25년 전세계 전기차 판매는 1,496만대로 전년대비 30.5% 증가
- 중국, 독일, 영국, 한국, 인도, 베트남 등 주요국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 기록

○ 국내 전기차 시장 회복세 본격화

- 국내 전기차 시장은 '23~'24년 역성장 이후 '25년부터 회복세 전환
- '25년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: 220,177대, 전년대비 50.1% 증가
- '26년 1~2월 전기차 판매 : 41,293대, 전년동기대비 166.9% 증가

(단위 : 대, %)

구분	2023	2024	2025	2025		2026 1-2월	2026 1-2월	
				전년대비 증감률	비중		전년대비 증감률	비중
승용	115,756	122,560	189,701	54.8	86.2	33,991	161.9	82.3
승합	2,815	3,594	3,216	-10.5	1.5	155	-42.4	0.4
화물	43,890	20,535	27,237	32.6	12.4	6,983	-	16.9
특수	46	45	23	-48.9	0.0	164	-92.6	0.4
합계	162,507	146,734	220,177	50.1	100.0	41,293	166.9	100.0

○ 시장회복 배경

-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지원정책 재강화

- * (중국) '22년 말 전기차 직접 구매보조금 종료, 다만 차량구매세 감면과 '이구환신' 정책을 통해 전기차 수요 유지, 차량구매세는 2024~2025년 전액 면제, 2026~2027년 50% 감면 구조 운영
- * (독일) '23년 말 예산 문제로 전기차 구매보조금 조기 종료, 이후 '24년 전기차 판매가 27.4% 감소, '24.7월 법인용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및 '26.1월 개인 보조금 재도입으로 시장 회복 추진
- * (영국) '22년 승용 전기차 구매보조금 폐지, 이후 시장 둔화에 대응해 '25.7월 전기차 구매 할인 재도입
- * (일본) '26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확대(EV 보조금 85만엔 → 130만엔, PHEV 55만엔 → 85만엔으로 상향), 친환경 철강 제품 사용, 차량에 대한 추가보조금도 도입

- 국내 전기차 보급정책도 전년 대비 강화

- * 정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최대 580만원(전년 동일) + 내연차→전기차 전환시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
- * 제조사 프로모션 강화 및 신차 효과

-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상승 등으로 성장세 강화 전망

- * 배럴당 \$100 이상 (강력한 유인) :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 내연기관차의 유지 부담이 전기차보다 약 5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
- * 배럴당 \$80 수준 (경제성 확보) :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은행의 분석에 따르면, 유가가 80달러 수준만 유지되어도 보조금 없이 내연기관차와 총소유비용(TCO) 면에서 대등한 수준(Parity)에 도달

○ 울산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

- 울산은 1공장~5공장 혼류생산으로 연간 20만대 생산능력 기 확보
- 현대차(기아 제외) 생산 capa 20만대 중 90% 이상 울산에 집중
- '26년 상반기 전동화 신공장 가동으로 연간 20만대 capa 추가 확보함에 따라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는 울산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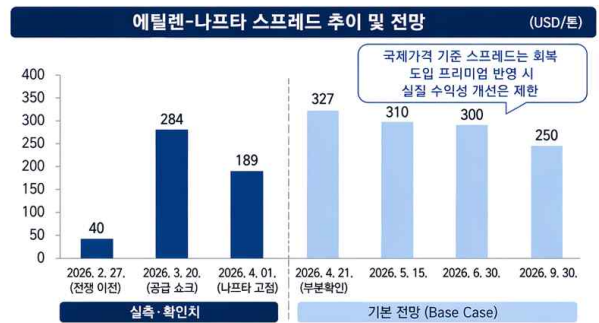
□ 이란 전쟁에 따른 울산 자동차부품기업 애로 현황

- 의장(인테리어) 부품 기업 (DY덕양, 서연이화, KBI동국실업 및 협력사 등 해당)
 - 주요 소재 납품사 : KPX, 현대EP, 대하, LG화학, 한화토탈, 롯데케미칼, 삼양사, GS칼텍스, 바스프, 삼성폴리캠 등
 - 고가 소재(ABS, 나일론, PBT, PC, POM) : 사용량이 많지 않으므로, 최소 발주시 1개월 가량의 재고 확보
 - 저가 소재(PP 등) : 사용량이 많지만, 보관창고의 한계 등으로 일주일 단위 발주 요청이 진행됨.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.
- 대응 현황
 - 완성차(현대차) 업체는 제품 재고 10일 물량, 원료 재고 30일 물량 확보를 요구중
 - 원료 공급사가 대부분 대기업으로, 생산량 유연성이 크지 않아 소재 재고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.
 - 완성차 업체 : 정유사-원재료사-현대차 주 1회 미팅 지속 중
 - 정부 : 플라스틱 소재 및 부품 서플라이체인 모니터링 중(완성차, 지역기관 활용)
- 전망
 - 단기적으로 완성차, 소재사, 부품기업 협력체제로 대응, 1개월 정도의 재고 확보
 - 전쟁 장기화로 정유사 원료확보가 어려울 경우 생산중단 우려가 있음.
 - 원료 수급이 어려울 경우 중국화학업체 등 대체 공급원 활용(완성차 승인 필요)
- 차체 등 기타 부품 기업 동향
 - 유가 상승으로 공정 작동유, 방청유 등 유류 제품 가격이 급등
 - 고중량 부품 및 해외 수출 물량의 운송료 증가로 수익성 악화

울산 화학 산업 주요 동향

□ 나프타·에틸렌 가격 동향 및 전망 (기준시점: 2026. 4. 22.)

- 휴전연장 기대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확인되지 않아 가격 불안은 지속 중.
 - 4월 22일 Reuters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휴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혔으나, 이란 및 이스라엘의 동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.
 -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폐쇄 상태로 언급되었으며, WTI는 배럴당 90.12달러 수준을 유지.
- 나프타·에틸렌 가격은 고점권에서 일부 재조정되고 있으나, 전쟁 이전 수준으로의 조기 복귀 가능성은 낮음.



- 아시아 석유화학 공급망은 중동산 나프타 의존도가 높아 가격 충격이 직접 반영.
 - Reuters는 호르무즈 폐쇄가 전 세계 나프타 수출 흐름 약 120만 배럴/일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함.
 - 한국은 아시아 최대 중동산 나프타 수입국이며, 호르무즈 경유 물량이 전체 나프타 공급의 54% 수준.

□ 국내정책 대응

- 정부는 나프타 도입비용 지원과 기초유분 수급관리를 통해 단기 공급망 안정화 착수
 - 정부는 6,744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, 4~6월 체결 나프타 도입계약 물량에 대해 전쟁 이전 가격과 실제 수입가격 간 차액의 50%를 지원.
 - 지원 대상에는 나프타 대체원료인 LPG·콘덴세이트와 에틸렌·프로필렌 등 기초유분도 포함됨.
- 석유화학 핵심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수급조정도 병행되고 있음.
 - 정부는 중동전쟁 관련 석화제품 수급점검회의를 통해 수액제 포장재, 에틸렌가스, 종량제봉투 등 석화제품 수급 안정과 필수제품 공급 차질 방지대책을 논의.
 - 에틸렌·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은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점매석 금지 대상에 포함되었으며, 전년 동기 대비 재고량 80% 초과 보관이 제한됨.

울산 조선 산업 주요 동향

□ 주요기업 동향

- 산업부,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강화사업 협약에 따른 지역 주요기업 현황 파악
 - 미 해군함정 MRO 수주현황 : HD현대중공업 1척, 한화오션 2척
 - * '25년도 수주실적(5건) : HD현대중공업 2건, 한화오션 2건, HJ중공업 1건
 - ⇒ MRO 참여 기업 대상으로 시설·장비 대여 지원 참여 유도
 - 세진중공업, 미 함정 MRO 참여를 위한 '함정정비협약(MSRA)' 체결 준비 검토
 - ⇒ MSRA 인증 컨설팅 참여 유도
- HD현대중공업은 스웨덴 해사청(SMA)과 3억 4890만 달러(5148억원) 규모의 쇄빙전용선 1척 건조 계약 체결

울산 이차전지 산업 주요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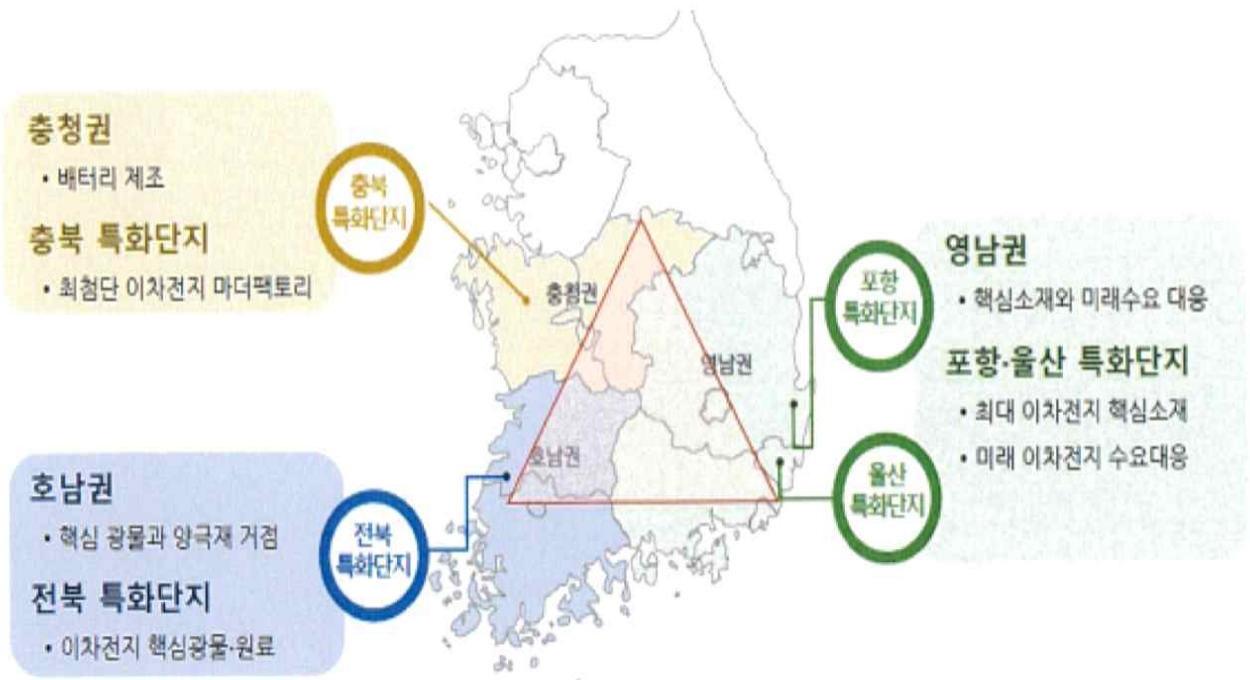
< 배터리 정부정책 동향 >

특화단지 기반의 지역 연계형 배터리 삼각벨트 생태계 구축 추진

□ 배터리 삼각벨트 개요

- 국내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 내 밸류체인 역량 강화 및 전략적 연계 추진으로 공급망 자립화 및 생산거점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
- ⇒ 밸류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-핵심소재-핵심광물 각 분야별로 특화된 배터리 트라이앵글 구축 추진

< 배터리 삼각벨트 >



□ 배터리 삼각벨트 추진 방안

- 정부의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과 권역별 배터리 산업 지원 계획을 실시간 동기화 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
- 지역별 기구축 인프라와 산업 역량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 투입의 효율화 추진
- 소재-기술-제조가 맞물리는 초광역 상생협력 체계 구축 추진
 - 각 지역의 기업·기관·대학들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삼각벨트 내 인프라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추진
 - 삼각벨트 민관 협의체를 구성(6월 발족)하여 배터리 삼각벨트 내 권역간 정책지원, 기업지원, 인프라 투자 및 상생협력 방안 마련 추진

울산 시 산업 주요 동향

□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AX 실증 주요 적용 사례

- 리그(Lug)* 제작 공정 자동화 및 레이저 용접 적용
 - 기존 수작업 용접 공정에 자동화 설비 및 레이저 용접 기술 적용으로 생산성·품질 동시 향상
 - 생산성 : 수작업 500ton/day(숙련공 6명) → 로봇 1,000ton/day(오퍼레이터 1명)
 - 품질 : 용접 결함 개선, 작업자별 품질 편차 해소
- * 리그 : 선박 블록-대형 철구조물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고리 역할 핵심 기자재
- 설계-생산 연동형 디지털 매뉴팩처링 체계
 - 숙련자 노하우 기반 용접 조건을 설계 도면과 자동 연동 → 디지털 트윈·공정 데이터 저장·비전 기반 검사까지 일관 체계 구축
 - 중형선사업본부에 레인보우로보틱스 협동로봇 용접 시스템 35세트 도입 중
 - 포터블 타입 협동로봇으로 협소 블록 내부·곡면 구조물 등 비정형 공정에서도 자동화 구현

□ 주요 시사점

- 단순 자동화를 넘어 “공정 데이터 축적 → AI 확장 기반 확보” 단계로 진입한 실증 사례
 - 숙련도 의존 공정 → 데이터 기반 표준화 공정 → AI 자율제어 공정으로 진화
- 인구절벽·기피직종화에 따른 조선업 인력 구조 문제의 실효적 해결 수단이자, 숙련공 노하우를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하는 모델
- 주력 산업 전반(조선기자재·자동차부품·플랜트)으로 확산 가능한 범용 AX 모델

□ HD현대중공업 협조 요청사항

- 조선업 AI 적용 기획 공동 추진
 - 조선업은 숙련 의존도가 높고 공정 데이터가 풍부해 AI 적용 효과가 가장 크게 발휘되는 제조 분야로, 현장 실증이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파급력 보유
- 3차 협력사(철의장 업체) 디지털화·AX 확산 지원
 - 철의장(사다리·난간 등)은 조선업 근간이나, 영세·2세 경영 단절로 생존 위협 상황
 - ① 현중 아이디어 + 울산TP 기술지원, ② 2~3개 선도기업 스마트공장 참여, ③ 부울경 광역 디지털화·AX 확산 사업화 추진 검토